

#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0 회 , 예수, 메시아/신,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0, 예수, 메시아/신, 1부입니다.

다음 신학적 주제, 특히 우리가 고려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약 신학적 주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4개 정도의 섹션에 걸쳐 살펴볼 것입니다. 한 섹션은 메시아이자 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살펴보고,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성경적-신학적 주제의 성취와 궁극적인 표현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로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것, 예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적과 운명을 구현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자신이 새로운 탈출을 가져오신 새로운 탈출의 주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을 비준하고 확립하는 새 언약, 그리고 사실상 모든 언약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구약성경의 모든 주제와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원적으로 다루신 전체 줄거리와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 우리가 이미 말한 많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신약 신학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모든 가닥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성취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와 절정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자주, 그 약속들이 그의 백성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그에게 속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백성을 포용하기 위해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정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강조점과 묘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았고, 예를 들어 메시아적 인물, 다윗의 더 큰 아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시작하여 신약 신학과 신의 계획에 대한 구속사적 성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저는 그리스도가 창조를 성취하심, 새 창조, 땅,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하나님의 형상 등에 관해 우리가 말한 것과 너무 겹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다른 영역과 주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점은 복음서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음서가 묘사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신의 자기 이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정식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칭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거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바울 문헌으로 시작하여 나머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바울 서신 외의 다른

신약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요한 계시록으로 마무리합니다.

계시록은 종종 우리의 종말론에 기여하는 역할로 전락하지만, 계시록은 내가 신약에서 찾은 어떤 책보다도 가장 풍부한 그리스도론을 담고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소개,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 강조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저자들이 예수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거나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했던 예수의 일반적인 칭호를 살펴보겠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동의하는 광범위한 진술을 하자면, 예수가 구약성서 이야기의 절정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주시는 구원만이 아니라, 물론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옛 이야기를 요약하신 것을 보았고, 심지어 어린 시절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이미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구약성서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읽으라고 간청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서사와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구약성서 이야기와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위대한 언약의 일부로서, 성취로서 읽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즉

구약성서를 완성하거나 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가 제시되는 다른 주요 주제나 주요 방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는 또한 신으로 제시됩니다. 즉, 복음서에서 우리는 종종 체계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부르는 가장 강력한 진술을 발견하는데, 이는 예수가 신 자신이고, 예수가 신의 본질, 바로 그 성격을 공유한다는 후대의 삼위일체적 공식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약 저자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우리는 복음서 자체에서 나중에 교회 신앙고백과 그런 것과 같은 것, 그리고 나중에 신조에서 그리스도론적 공식화를 이끌고 제안하기 시작할 만한 많은 자료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의 가장 명확한 표현 중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1절이 보통 우리가 가리키는 본문이지만, 실제로는 서문 전체, 처음 18절이 함께 예수가 누구이고 저자가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1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분명히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자는 후대의 신조의 언어로 묘사하지 않지만, 저자는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첫 번째 구절에서 태초에 창세기를 암시하면서 시작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할 시간이 없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러 종파와 종교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존재 또는 신과 동일시되지만 구약의 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요한이 1장 1절에서 정확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신,

창조에 책임이 있는 구약의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다소 의미심장한 진술을 합니다. 나중에 신약의 저자 들이 일신교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었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거나 고백하는 것은 노골적인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의 참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완전히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하며, 요한은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자가 창조 활동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 성전 주제와 관련하여,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언급했고, 이 거처와 영광의 언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거처,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거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주장하시거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언급의 절정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1장 1

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장막이 있는 현존이 거주합니다. 이제 18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모티브이지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신 분이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분께서 지금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에 보이게 알려졌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전체는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저자가 그리스도를 묘사한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로고스로서 예수, 즉 계시나 담론이나 연설을 암시하는 단어인 로고스로서 예수가 바로 계시이며, 예수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담론이며, 하나님의 현존이며,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두드러진 주제를 소개하자면,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인한 활동을 수행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을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신약에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과 같이 종종 그분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마비 환자나 마비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마비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흥미롭게도 그는 먼저 그를 고치지 않고,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율법의 선생들 중 몇몇은, 6절에서, 거기에 앉아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뛰어들어서, 글썄, 나는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나는 죄를 용서하지만, 그저 그렇게 할 뿐이야. 그는 아마도 그 일을 말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죄 사함을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동일시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다른 누구도 이 본문에서 그것을 반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지배적인 주제, 즉 구약에서 신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이제 성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헌신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위대한 복음의 맨 마지막, 우리가 종종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 16절로 시작해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52절, 누가복음 24장 52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시작되어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인도한 후에,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축복하는 동안, 그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경배했고, 그런 다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는 이 주제가 계시록에서 복수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 의 헌신과 경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에 포함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시 초기 신자들의 일신교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유대교의 일신교와 우상숭배를 어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숭배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헌신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재하신 아들로 묘사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과 1장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많은 본문들이 비슷한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일련의



증거 본문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5~2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주목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 이것은 당신께서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흥미롭게도, 당신은 이것을 읽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숨겨진 것들이 이제 아들을 통해 계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기로 택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과 같은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현인과 교사를 보낸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다른 자들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 마을에서 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누가복음 본문, 아마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이다. 잠깐 그쪽으로 넘어가자.

Gathercole 이 쓴 책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발견한 예수에 대한 개념을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가 세상 밖에서 오는 지식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계시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재 아들을 다루는 책에서 Simon Gathercole이 관찰한 것과 연결하여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가 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지 증거 본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입니다.

예를 들어, Gathercole은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오거나, 예수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거나,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러 오거나, 예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다양한 일을 하러 오십니다. Gathercole은 이것이 예수가 인간 존재의 영역 밖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늘의 영역에서 땅으로 오셔서 이것이 선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브라함, 이삭, 다윗 또는 다른 누구를 선택하신 것처럼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인간 존재의 영역 밖에서 온 선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의 영역에서 온다. 그래서 나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가 하나님의 선재하신 아들이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온다는 공통된 모티브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예수는 1장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이다.

또 다른 주제는 예수가 신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단어에서 암시하는 대로 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은 이제 계시하신 아들을 통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요한복음 1:18에서 '거기'라는 단어가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를 해석합니다. 그것은 알려 주거나 계시하는 단어이며,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exegesis*라는 단어를 연습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알리거나 해석하고 계시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지배적인 주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다른 지배적인 주제는 예수가 신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서와 유대 문학에서 지혜는 토라에서 발견되거나 토라와 동일시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잠언서에서 우리는 다른 유대 문학에서 이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토라와 동일시되고,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언 2장 1절과 2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속에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돌리고 네 마음을 이해에 적용하면. 3장 1절, 내 아들이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것이 네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이 지혜가 토라와 동일시되거나 지혜가 토라에서 발견되는 다른 유대교 문헌에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배우기를 제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의 멩에를 메기를 제안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오거나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멩에를 메는 아이디어가 유대 문학에서 다시 토라와 연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수를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러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지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사실은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 주셨으니,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28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세요.

이런 숨겨진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후, 이제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서 지혜가 발견됩니다.

한 사람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예수께 갑니다. 한 사람은 원래 토라와 관련된 학습의 멍에를 메기 위해 예수께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장, 다음 장, 12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파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여왕 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녀는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고,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 예수는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배우며, 와서 그의 멩에를 메고 갑니다. 또 다른 모티브는 예수께서 그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옛 언약, 혹은 죄송합니다, 새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으며, 또한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종종 제안하는 이유는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거나 행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께 기인하는 활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성취된다는 모티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장소 중 하나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폭풍을 가라앉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나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때,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고, 그들은 그를 깨워야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람도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진술을 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감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마도 시편 107편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이것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몇 가지 대표적인 본문만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과 23절 이하입니다. 바다와 배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큰 물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적, 깊은 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고 폭풍을 일으켜 파도를 높이 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들의 위험 속에서 그들의 용기는 녹아내렸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비틀거렸다.

그들은 지혜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는 그들을 그들의 곤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는 폭풍을 속삭임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잔잔해지자 기뻐했고, 그는 그들을 그들이 바라는 안식처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멈추겠지만, 시편 107편에서 그 연관성을 보십니까? 폭풍을 가라앉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폭풍을 속삭임으로 가라앉히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1:9~10과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바다를 다루시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본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의 기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그가 폭풍을 가라앉히고 혼란스러운 바다를 다루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오직 신에게만 기인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예수에 대한 반응이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태 복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중 상당수는 다른 복음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록을 모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1장, 마태 복음 11장입니다. 사실, 10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로 와 시돈 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베옷과 재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 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들어올려지겠느냐? 아니, 네가 하데스로 내려갈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행해진 기적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다면,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흥미롭게도, 심판이 이제 예수와 그의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전제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근거하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배제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저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를 강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새 언약을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의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쌓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를 구약성서 이야기의 절정으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 활동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독특하게 드러내는 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 그 외에도 몇 가지 칭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가 자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칭호나 작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지칭하는 칭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라는 칭호. 저는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나 다윗의 왕으로서의 예수라는 주제에 대해 꽤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사용된 메시아라는 칭호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다가올 왕, 메시아적 구원자에 대한 구약의 기대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이전 논의로 돌아가서 시편 2편, 시편 110편, 사무엘하 7:14, 시편 89편, 에스겔 36장과 37장이 다윗적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가올 기름부음받은 자의 배경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적 왕, 다윗적 인물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본문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유배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맥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입니다. 지혜와 이해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예새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싹, 그의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메시아적 언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본문, 23절 5, 6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날이 이르리니, 그는 지혜롭게 통치하고 땅에서 공의롭고 옳은 일을 행할 왕이로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 곧 우리의 의로운 구원자 주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언적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을 기반으로 다가올 다윗의 인물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시편 본문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 이 칭호를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돌아다니며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다가올 메시아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적 대본과 메시아적 역할을 행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 다윗의 더 큰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신 다른 일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1번, 왜 다른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일을 하셨지만, 그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할 때 침묵 하라고 명령 하십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다니시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부적절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철장으로 통치할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계시고, 그가 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먼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주장하실 때,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자들조차도 그 둘을 합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 칭호를 피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때 침묵을 명령하신 주된 이유는 이상한 전도 도구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아마도 오해를 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어떤 유형의 메시아인지 오해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 바로 그 사실은 그가 지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는 다윗의 왕 또는 아들임을 시사합니다.

그때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행동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6장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재판장을 시도합니다. 재판에서 선서를 했을 때, 그는 실제로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봅시다, 제가 또 잘못된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기 전, 자신이 메시아인지 물었을 때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예수는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27장이 제가 원하는 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재판에서 선서한 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결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메시아로서 행동했으며,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 중 하나는 예수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 그리스도이며, 유대인들이 기름부음받은 다윗 왕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성취한 것입니다.

또 다른 칭호는 예수에게 훨씬 더 흔하고 아마도 그가 자신을 지칭하는 데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인간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들은 단순히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대 문학의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8장도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에게 적용되는 인자의 적절한 배경은 다니엘 7장 14절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자가 와서 왕좌 앞에 서서 왕국을 받는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왕국을 받고 권세를 받는 천상의 고귀한 인물입니다. 7장 초반에 나오는 다른 짐승 왕국들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짐승의 인물들과 대적하는 인간의 인물을 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인물, 즉 인자를 봅니다. 그는 이제 권세를 받는 천상의 고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예수의 인자 이미지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인자 이미지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보다 자신을 지칭하는 데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듯합니다. 또한 아담 언어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8장, 인자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존엄하게 대우받을까요? 시편 8장의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도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다시 언급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이번에는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은 시편 8장과 같은 본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이를 새로운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칭호, 사람의 아들을 예수에게 적용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세요.

시편 9장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과 12절은 다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자신을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인자로 언급하신 다른 구절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용어의 적용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특히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경우, 그것이 예수를 고난을 받고 죽을 분으로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칭호를 요약하자면, 아마도 이 용어의 의미에 중요한 이유가 있고, 예수께서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그것이 모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는 왕국을 가져오고 그의 백성을 대표할 고귀한 인자이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 온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의 인자처럼 그는 또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용어였고, 아마도 예수가 그것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모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다니엘 7장의 높여진 하늘의 인자로 왕국과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겪고 죽기 위해 온 인자였습니다. 예수를 지칭하는 또 다른 칭호는 신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신의 아들은 적어도 두세 가지 언급, 두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그리고 22절과 아마도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고, 내 아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놓아주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한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다윗 왕과 관련하여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장에는 다윗의 아들 또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

몇 번 살펴보았지만, 다윗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편 2장 6절부터, 나는 시온에 내 왕을 세웠노라, 다윗의 아들. 시온 산, 내 거룩한 산에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리라.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차려입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윗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적 칭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맥락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48절, 예수와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했다.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예수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참 이스라엘, 참 신의 아들이지만, 또한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특히 요한 복음에서, 아들됨,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버지와 예수의 독특한 관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는 요한 복음에서도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하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 왔을 뿐이다”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는 기능한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능하기 위해 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중에 삼위일체적 공식화를 위한 일부 자료를 제공했는데, 당신은 하나의 본질, 즉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게 공유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기능적 구별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요한은 그것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참 이스라엘이지만, 그는 독특한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에서 아들인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와 독특한 권위를 공유하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아들로써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예수의 관계, 그가 메시아적 칭호라는 사실, 그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와 하나님의 독특한 권위를 공유하며 요한 복음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칭호라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을 발견하는

역할입니다. 비록 그 언어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사야가 종에 대해 이해한 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2장과 53장에서 이사야는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처리하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종을 묘사합니다. 도살당하도록 이끌리는 어린양의 언어와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종에 대한 구절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지만 종의 언어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 52장과 53장,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40장부터 55장까지에서 종이 이사야서에서 실제로 단체적이고 개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특히 52장과 53장에서, 이스라엘 자체의 죄와 슬픔을 짊어지러 오신 분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종의 역할을 다하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몇몇 치유의 끝 부분에 있는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여러 치유 기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8장 16절에서 저녁이 되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려왔고, 그분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인용문은 바로 마태복음 53장 4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언급 중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인자도 섬기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마도 저자는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에서 언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이사야의 종의 명칭이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칭호들이 있지만, 이러한 칭호들은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칭호들 중 일부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구약의 성취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독특한 계시로서, 그리고 세상과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예수, 메시아/하나님, 1부입니다.